

벤처 관련 정책

◎ 중기청, 500만 불 500개

수출중기 육성 프로젝트 본격 출범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 www.smba.go.kr)은 5년 내 단기간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해 수출초보기업을 수출 500만 불 이상 증견수출기업으로 육성할 100개사를 선정하고 공식 출범하였다.

행사에는 수출잠재력이 큰 100개 선정기업을 비롯하여 한국수출보협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 기관장들도 다수 참석하였다. 홍석우 청장은 100개 선정기업에 참여중서 수여와 함께 참여기업 모두가 수출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기관들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참석한 기업인들을 격려했으며, 지원기관장들과 기업대표는 “중소기업 수출성장 신화창조”라는 구호로 세계 속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도약을 향한 힘찬 도전과 결의를 선포하였다.

이번 500-500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제1기 기업들은 우선 중소기업청과 수출유관기관이 추진하는 수출기업화사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과 수출보증, 수출자금 및 각종 수출관련 지원사업 등 각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행사 중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신장이 뛰어나 수출확대에 기여한 중소기업 15개사 및 지원유공자 등 21명에 대하여 「우수 수출중소기업인상」을 수여식을 가짐으로써 수출중대에 대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500-500 프로젝트 발대식」을 시작으로 하여 2012년까지 수출잠재력이 큰 기업 500개를 지속적으로 선정,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신장을 통한 경제회복 및 국가경쟁력 상승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특허청, 수수료 감면 등 출원지원 정책 지속 추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출원지원 정책이 빠르게 확산· 정착되면서 출원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고정식, www.kipo.go.kr)은 올 1월부터 본격 운용에 들어가 출원인의 출원서류 작성을 콜센터 전문상담사가 원격 지원해 주는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09.3월) 결과 88.9%가 만족하고 있으며, 상담건수도 1월 71건에서 2월 134건(88.7% 증가)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 1월 소기업에 적용되던 수수료·청구료 70% 감면 혜택의

중기업으로의 확대(50%→70%), 중·소기업이 출원서류별로 매번 제출하던 감면 증빙서류를 1회 제출로 최대 4년까지 효력을 인정해주는 정책들이 시행 초창기부터 내실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수수료·청구료 감면 확대로 올 2월까지 중소기업이 출원한 3,168건이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2천만 원에 이른다.

특허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출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객 중심의 시스템 개선, 수수료 등 감면,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출원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염두에 둔 정책들로서 향후에도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각종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소수출기업 무역기금 신청 대폭 늘어

3월부터 시행하는 금년도 무역기금 용자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업체 수는 17% 증가한 395개사, 소요금액은 21%가 늘어난 1,193억 원이 접수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 www.kita.net)는 30일 금년도 제1차 무역기금 지원대상 185개 수출중소기업을 선정, 총 267억 원의 자금을 지원키로하고 전국은행에 추천했다. 이처럼 용자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수출부진에 따른 중소수출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데다가, 무역기금 용자대상을 올해에 한해 신규업체에서 기 대출업체까지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금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29개 업체는 상환금액 전액을 다시 추천했다. 무역협회는 신청업체의 47%인 185개사, 267억 원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용자희망 은행에 추천하고, 개별보증 등 은행의 대출승인이 확정되면 오는 4월 28일 일괄 지급했다. 이 같은 추천은 전년 동기에 비해 업체 수 38%, 금액 30%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이행 및 시장개척사업을 지원키 위해 연4%로 2년간 지원되는 무역기금은 당초에는 금년에 9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 경감을 위해 600억 원을 증액하여 1,500억 원으로 늘었다. 또, 최근 엔고를 활용한 대일수출 확대를 위해 대일 수출업체와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우선 지원하고 있다.

● 전기연구원, “고효율 전기기기 및 녹색전력시스템 집중 육성”

전기분야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 한국전기연구원(원장 유태환, www.keri.re.kr)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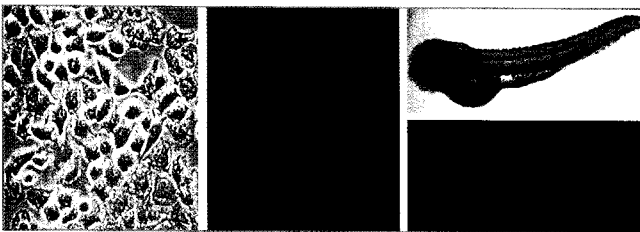


R&D 과제와 향후 전개 방향을 ‘고효율 전기기기’와 ‘녹색전력 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묶어 추진한다.

한국전기연구원은 4월 2일 산업기술연구회 한옥 이사장이 창원 본원을 방문, 전기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연구개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기연구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녹색기술수준 향상과 녹색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즉 2011년까지 전력 IT 분야에 선 선진국 수준을, 조류발전 및 열전발전 분야에선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며, 전동기 효율을 기존대비 3% 향상시키는 한편 녹색전력 등의 신산업육성과 IT융합 에너지 분야의 제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전략으로 2011년부터는 65% 이상의 예산을 녹색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신재생에너지망과 에너지 고효율화 분야를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전기연구원은 최근 창원시와 공동으로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을 이용해 창원시 북면에 신·재생에너지 자급 단지를 조성키로 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외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POSTECH, 유기 수은 검출 가능 형광 센서 개발



국내 연구팀이 ‘미나타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메틸수은과 같은 유기수은을 생물체에서 검출해 영상화할 수 있는 형광 센서를 개발해 국제 학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총장 백성기, www.postech.ac.kr) 화학과

안교한 교수·미툰 산트라(Mithun Santra) 박사·박사과정 류도욱 씨 팀은, 최근 영국왕립화학회(RSC)가 발행하는 ‘케미컬 커뮤니케이션즈(Cheical Communications)’를 통해 ‘살아있는 생물체 내의 유기수은(organic mercury)을 형광 감지할 수 있는 형광 센서’ 개발 성과를 발표했다.

생물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은은 대부분 유기 수은(주로 메틸수은) 형태로 발견되는데, 유기 수은은 친유성(親油性·lipophilicity) 성질로 인해서 생물체 내의 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어 무기 수은보다 쉽게 흡수될 뿐 아니라 장기간 축적되기 때문에 독성이 큰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무기 수은 화합물에 대해서는 많은 종류의 형광 센서가 개발된 반면 메틸수은과 같은 유기 수은을 검출해 낼 수 있는 형광 센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다.

● ETRI, ‘투명 트랜지스터 이용한 AM OLED’ 세계 최초 개발

LCD 이후의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알려진 AM OLED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이 ETRI에서 개발되어 미국, 일본 등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경쟁에서 우리나라가 한 발 앞서게 되었다. ETRI(한



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최문기, www.etri.re.kr)는 15일, 실리콘 기반의 불투명한 트랜지스터 대신에 투명하면서 빛에 안정된 산화물 트랜지스터를 개발, 이를 구동소자로 이용하여 개구율이 대폭 개선된 AM OLED(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조기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올해 1월 재료분야 최정상급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인용지수 8.191)’에 게재되었으며, 우수한 연구성과로 인정되어 올해 3월 ‘NPG Asia Materials’에 “Research Highlights”로 소개되었다.

기존의 AM OLED는 실리콘 기반의 불투명한 트랜지스터가 사용됨으로써 대(大)면적화와 개구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ETRI가 개발한 산화물 트랜지스터는 투명하기 때문에 개구율을 대폭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산화물 박막 트랜지스터를 산업적으로 응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소자 동작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 전북, 군산단지 자동차용 친환경 부품 R&D집적센터 '벤처집적시설'로 지정

군산·군장국가산업단지 내 신축중인 군산 자동차용 친환경 부품 R&D집적센터가 전북도의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첨병으로 거듭나게 된다. 전라북도에서는 2009. 4. 15일 현 군산클러스터추진단에 건립 중인 4층 건물(6,244.24m²)의 자동차용 친환경 부품 R&D집적센터 중 1~3층(4,689.95m²)를 벤처집적시설로 지정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자동차용 친환경부품 R&D집적센터에 입주하는 자동차용 친환경 부품 생산 기업은 공동기술개발, 공동구매 및 공동마케팅 등의 협력과 경쟁으로 산업 기술확보는 물론 창업 및 사업화 구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고, 집적시설에 입주를 원하는 벤처기업은 원활한 입주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클러스터추진단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내에 Pilot Plant를 설치하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 개발을 위한 친환경 플라스틱부품의 연구 및 시사출 제품 제작 등의 활동을 지원하며, 성형장비 및 필수 연구장비 구축은 물론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전북도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할 계획이다.

● 광주시, 주문형 반도체 칩공장 유치

미국 LA지역에서 투자유치에 나선 광주시(시장 박광태, www.gwangju.go.kr)가 주문형 반도체 칩공장 등 4,1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LA수출상담회에서는 LED 전문제조업체 등이 3,700만 달러 수출계약 MOU를 체결하고,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박광태 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투자유치 및 시장개척단'이 14일(현지시간) 오전 LA에서 투자환경설명회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투자 MOU를 체결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광주시는 투자환경설명회에 앞서 LA 월셔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MOU조인식에서 인빅스 홀딩스사 등 2개사와 4,100만 달러의 투자 MOU를 체결했다. 라이텍코리아 등 LED 전문제조업체 7개사가 참가한 LA수출상담회에서는 1,200만 달러를 비롯, 총 3,700만 달러의 수출계약 MOU를 체결하고, 문화콘텐츠분야에서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업체인 (주)에넴 등 2개사가 미국의 알

캐나 스튜디오 등 애니메이션 3개사와 5건의 투자 및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빅스 홀딩스사는 평동외국인투자지역 45,274m²의 부지에 우선 2,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반도체칩 및 전자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어학학습기, 음향기기, 애플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미국과 한국에서 R&D를 공동 수행하고 제조는 한국에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100% 미국 자본을 들여와 올해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가 3년에 걸쳐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특히, 인빅스사가 생산하게 되는 칩은 주로 PC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나 메모리칩 등 일반 집적회로와 달리 특정한 전자·정보통신 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비메모리칩으로 이른바 음향기기용 주문형반도체(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다.

● 청주시, 수출초보기업 외국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청주시(시장 남상우, www.cjcity.net)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수출 초보기업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외국어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 증진 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외마케팅관련 영어, 중국어, 일본어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본사와 공장이 청주시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 바이어의 방한에 의한 수출상담이나 전화를 통한 외국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시 통역지원과 카탈로그, e-mail 등 시청 국제통상담당 통역 인력(1명)이 각종 무역 관련서류의 번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통·번역 서비스를 희망하는 업체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주시청 경제과(043-200-2343, FAX, 222-2213)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시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서도 외국어 능력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 초보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맞춤형 해외마케팅 추진 등 관내 중소기업체의 수출 활로 확보에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KB국민은행, '직장인 우대적금' 출시



KB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 www.kbstar.com)은 직장인의 재테크 스타일을 반영해 다양한 우대이율로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직장인 관련 무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우대적금」을 13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개인고객이 가입대상으로 월 저축금액 10만 원 이상 3백만 원 이하의 정액적립식 적금이며 분기별 1회에 한해 최대 5백만 원까지 추가적립도 가능하다.

적용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1년제 연2.9%, 2년제 연3.1%, 3년제 연3.2%의 기본이율에 급여이체 고객에게는 연0.3%p의 우대이율을 그리고 보너스 등 부정기적인 자금을 추가적립 시 연0.2%p를 추가로 제공하여 3년제 가입 시 최고 연3.7%의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우대이율로 월 급여를 꾸준히 모으면서 보너스 등 여윳돈을 추가 저축하여 목돈을 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산업은행,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1조 원 P-CBO 발행 추진



한국산업은행(은행장 민유성, www.kdb.co.kr)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코자 산은의 신보출연을 통한 1조 원 규모의 P-CBO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은은 833.4억 원을 특별출연하는 협약을 신보와 9일 오후 산업은행에서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산은 거래기업 및 추천기업으로 중소기업을 60%이상 편입해 우선 지원하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특히 산은 신용등급 BB-급 이하 기업을 30% 이상 편입해 자체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기초자산은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발행하는 3년 만기의 3개월 고정금리 이표채 형태로 발행되며, 신보 보증료율을 현행 1.0%에서 0.7%로 인하해 비용 절감 혜택이 발행기업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

◎ 신한은행,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진흥금융 지원



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 www.shinhan.com)은 "4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신한은행 본점(중구 태평로2가 소재)에서 신한은행 이백순 은행장과 한국수출보험공사 유창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진흥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 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중은행과 수출지원기관이 공조하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거래에 대한 금융지원과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한도는 5,000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기존 무역금융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수출실적 보유 중소기업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중소기업)으로 관련 상품은 신한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4월 하순 경에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신한은행과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신용등급 이상 고객에게 은행 대출금리 0.5% 우대 및 수출보험공사 보증료 0.3%를 감면키로 했다.